

지구촌 인디고 청소년 여행학교 설명회 순서

Global Indigo Youth Moving School

- 일 시 : 2011.1.29(토) 오후 2시~4시
- 장 소 :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세미나실
- 대 상 : 여행학교 교사, 참가 신청자, 학부모, 관심 있는 청소년들

[1부] 『국제 NGO 생명누리』와 『인디고 청소년 여행학교』 소개

1. 생명누리 소개영상
2. 인사말 & 여행학교 소개 - 권술용 대표

[2부] 제5기 여행학교 소개

1. 5기 여행학교 교사 소개
2. 5기 여행학교 설명 및 입학안내 - 홍진관 쌤

[3부] 제3기 여행학교 발표회

1. 여는 마당 - 새봄, 현경, 영근, 우현
2. 3기 교사 및 학생소개 - JJBC
3. 3기 일정 돌아보기 & 영상 - 손정원 쌤
4. 3기 여행이야기(수기)
5. 전체 공연(1) - 마음으로 그리는 세상
6. 학부모 글 발표
7. 피리와 해금, 아리랑의 이야기 - 상하, 경철
8. 테마글 발표
9. 전체 공연(2)- 카레
- 10.

[4부] 여행학교 질의응답

[목 차]

0. 5기 여행학교 모집 안내
1. 생명누리공동체 소개
2. 초대의 글
3. 여행학교 교육목표
4. 여행학교 특징
5. 여행학교 걸어온 길
6. 5기 여행학교의 목표 및 테마
7. 5기 여행학교 전체일정
8. 5기 여행학교 세부일정
9. 5기 여행학교 여행지도
10. 방문전 준비항목
11. 한국 사전 준비 프로그램
12. 교육비용
13. 참가비 환불규정
14. 연락처
15. 여행학교 조직안내
16. 여행학교 학생/ 학부모 소감문
17. 사진으로 보는 인도와 네팔의 모습
18. 짐싸기 및 자주하는 질문
19. 유의사항
20. 이후 여행학교 진행계획 안내
21. 산티학교 모집안내



50일의 대장정!
인도대륙과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
가슴 뛰는 여행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기 지구촌 인디고 청소년 여행학교

1000개의 색깔을 가진 신비의 나라 인도와 만년설을 머리에 이고 태고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내뿜는 네팔의 히말라야 트레킹을 통해 일반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다양한 문화를 만나고, 세상과 소통하는 살아 있는 교육을 체험합니다.

- ▶ 여행기간 2011년 4월 22일 ~ 2011년 6월 10일 (확정)
- ▶ 여행지역 인도 35일 /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 포함 15일 (50일)
- ▶ 모집인원 20명 / 인솔교사 3명 및 현지인교사 1명 (확정)
- ▶ 모집기간 2011년 1월 17일(월) ~ 2월 20일 (일)
- ▶ 문 의 생명누리사무실 070-4010-4949 / 02-766-5595
indigoyouth@hanmail.net / 생명누리 www.smnuri.com



지구촌 인디고 여행학교?



인디고(Indigo)란 천부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사회, 학교, 가정 등 기존 제도의 옷이 제몸에 맞지 않아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이르는 인디언의 어느 종족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인디고는 쪽빛(남색), 즉 청출어람입니다

한국의 인디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50일간의 세계여행을 통해 다른 문화와 사람들, 역사와 종교, 새로운 삶의 방식들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자신을 발견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세우고 스스로 꿈을 찾아가도록 돕는 학교가 바로 인디고 청소년 여행학교입니다.

세계를 만나는 50일의 여행학교

나눔과 사랑의 실천 **힌두푸르 생명누리 센터** | 고대의 유적지 **함피** | 아쉬람에서 배우는 인도의 정신 **세바그람**
신의 작품! 아름다운 타즈마할 **아그라** |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신비의 강 **바라나시** | 네팔 **안나푸르나 트레킹**



함께 만들어가는 여행학교



천의 얼굴 인도와 네팔의 생활, 문화체험
공동체 프로그램 참여
어학훈련
청소년 문화교류
전통스포츠 / 전통공연관람
평화와 사랑나누기
히말라야 트레킹을 통한 자기와의 싸움

모 집 안 내

- ▶ 모집기간 : 2011년 1월 17일(월) ~ 2월 20일(일)
- ▶ 선발방식 : 1차 서류제출(입학지원서 / 지원동기 / 자기추천서 / 부모동의서)
2차 면접(서류 제출 후 개별 진행)
- ▶ 접수처 : indigoyouth@hanmail.net
- ▶ 여행학교 설명회 : 1월 29일(토) 오후 2~4시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대강당
- ▶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및 합숙 준비 모임 : 2월 24일 ~ 26일 (1차) / 4월 7일 ~ 9일 (2차) - 장소는 추후 공지
- ▶ 문의 및 상담
 - 홈페이지 생명누리공동체 www.smnuri.com / 권술용대표 cafe.daum.net/kwonsay
 - 연 락 처 권술용 대표 ☎ 011-452-4982
실무 간사 문지혜 ☎ 010-6374-8018
생명누리 한국본부 ☎ 02-766-5595 / 070-4010-4949
 -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한국기독교교회관 911호 국제NGO 생명누리공동체



1. 생명누리공동체 (Life World Community) 소개

생명누리란 생명이 아름답게 꽃피는 세상이란 뜻으로 본래의 세상이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 욕심 차리느라 자연도 병들고 사람들도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명누리공동체는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이들이 뜻을 모아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고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며 이 땅에 평화를 위해 일할 지도자를 양성해내고, 멋진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며, 생명농업 운동을 통해 죽어가는 땅과 자연도 살리고 사람의 생명도 살려나가는 운동을 국제적으로 일으켜가는 **국제 NGO**입니다.

2010년 9월 한국 서울시 종로5가 한국기독교 회관 911호에 본부를 두고 국제적인 자원활동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을 훈련해서 파견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힌두푸르와 벨로르에 지부를 두고 20여명의 인도 스태프들과 10명 스텝 및 자원봉사자들이 컴퓨터교실과 직업훈련센터 및 4개 마을개발센터 등에서 봉사자로 활동하며 멋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명 평화운동을 잘 일으켜 가기 위하여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힌두푸르에서 6만 평의 땅에 공동체 학교 및 생명농업 시범농장 겸 달릿 농민 교육센터, 자연건강센터 등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소외된 농촌마을들에 마을 개발센터(현재 4개 마을에서 활동중)를 만들어 유치원과 방과 후 교실, 가축대부운동, 지하수 개발운동, 문맹자 교실, 모자보건 프로그램, 여성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벌여가며, 에이즈로 부모를 잃었거나 에이즈에 감염된 부모를 둔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미래의 생명적이고 평화적인 지도자를 훈련시켜가는 일을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생명누리공동체는 생명사랑과 평화운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돕고 사랑하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일에 기여하고자, 국제 생명평화 봉사단 활동, 생태적 마을 공동체 건설운동, 생명 평화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생명 평화 일꾼들의 파송과 교환을 통한 국제적 생명 평화 교류 및 실천 사업, 국내외 생명 평화기관 및 단체와 연대 및 협력사업, 생명 평화 관련 연구사업 등을 기반으로, 핵심 실천사업인 힌두푸르 행복한 마을(생명누리) 만들기 운동을 통해 자신이 사는 농촌 마을을 사랑하며 자립적이고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운동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생명누리공동체(Life World Community)의 목표

1. 생명과 평화를 위해 일해 갈 지도자 양성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아이들과 천부적 재능을 타고났으나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훈련시켜 생명을 사랑하고 평화를 위해 일해 나갈 훌륭한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게 돕는 훈련의 도장을 만들어 갑니다.

2. 아름다운 생태적 마을 공동체 건설

계급적 갈등이나 분쟁 또는 자연재해로 생존에 고통을 겪고 있는 세계 곳곳에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생태적인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을 돕고 지원하는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 갑니다.

3. 생명을 살리는 농업의 확산 기지

생명농업이야말로 죽어가는 땅과 자연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도 살리는 바른 농업의 길이라는 확신으로 생명농업을 널리 전파하는 기지가 될 것입니다.

4. 생명 평화운동의 산실

지역사회 건강센터를 통해 생명평화운동의 한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이 운동을 세계적으로 확산해가는 산실이 되어갈 것입니다.

- 로고 설명



생명누리 로고에는 생명누리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과 이루어가는 방법과 지향하는 개념들이 담겨 있습니다.

① 전체 모습(생명의 나무) - 생명누리 공동체의 목적은 이 땅에 생명누리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② 섬기는 손 - 우리의 작은 봉사와 사랑을 통해 생명누리는 만들어 질 것입니다.

③ 지구 - 우리가 사는 지구가 참으로 생명들이 살만한 삶의 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④ 비둘기 - 우리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 일합니다.

⑤ 어린이들 - 우리는 어린이들이 신명 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그 어린이들을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지도자로 훈련시켜 내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⑥ Life World Community - 영어로 된 생명누리 공동체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공동체) 생명누리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 문양은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며 생명나무를 감싸는 느낌을 줍니다.

2. 초대의 글

“가슴 뛰는 지구촌 인디고 여행학교에 초대합니다.”

권술용 생명누리 대표/ 여행학교 교장

제 5기 50 일간의 인도/네팔/히말라야

제 6기 전환학년 1년간 인도/네팔/동남아등 인디고 여행학교 설명회에 부쳐

50 일간의 4기 생명팀과 누리팀이 1월 4일과 1월 7일 각각 떠나고 네팔/동남아 3 개국을 아우르는 100 일간의 3기 여행학교가 1월 11일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제 50 일간 인도/네팔/히말라야를 여행하는 5기와 전환학년으로 1년간 인도/네팔/동남아/방글라데시를 여행하는 6기의 입학설명회, 그리고 3기 100 일 팀의 발표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광활한 대지, 10 개의 나라를 포괄 것 같은, 그리고 1000 가지의 색깔을 가진 신비의 나라 인도대륙 체험과 세계의 지붕인 네팔/히말라야 트레킹의 5 기 50 일간의 여행.

그리고 인도와 네팔, 동남아를 비롯한 여러나라를 8-9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전진캠프를 설치하고 한 지역에 한 달여씩 머물며 지역의 역사와 지리와 문화를 더 깊이 배우며 이해 할 수 있고, 또한 독서력과 자기주도적 학습과 토론식 학습을 일궈가는 전환학년 1년간(9 개월 여행)의 여행학교는 과보호란 온실 속을 벗어난 청소년들에게 인생의 위기 때마다 꺼내 쓰는 탁월한 위기 관리의 양약으로 가슴 속에 깊이 간직될 것 입니다.

‘인디고 여행학교’ 는 공교육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안학교들이 꽃 피워 가는 속에서, 10 대 청소년들의 넘치는 에너지를 여행을 통하여 발산하고 키워 내고자 합니다.

‘어린이에게 바람직한 추억의 형성을 위해 투자하라. 왜냐하면, 어릴 때 기억들이 곧 미래의 인간을 창출해 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행은 온갖 위기관리 대처 능력, 협동심, 배려, 인내, 낯선 풍물에 대한 경이로움 등 수많은 경험을 통해 배려와 영성, 생태, 생명과 평화, 지혜를 키우고 ‘광야를 가로질러가는 영적 도전-순례’ 를 체험하게 합니다.

전환학년 즉 갭이어(gap year)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핀란드, 아일랜드, 독일 등 일부 교육 선진국들은 중 3 때, 어떤 나라들은 중.고교 들어가기 전, 독일 등에선 대학진학 전, 일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여행을 통해서 세계를 둘러보는 배낭여행 도제수업,노작활동 즉, 전환학년, 갭이어(gap year)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느긋하게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맞는 미래가 어떤 것인가를 체험해보고 필요한 것들을 배워봄으로써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부모에게 경비를 의지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와 저축으로 준비하는 자주 독립정신이 일반화 된 배낭여행은 부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입시경쟁에 몰두하는 학교 안과, 제도권 바깥으로 내몰린 가슴앓이 청소년들, 삶의 주체성을 상실한 유약한 요즘의 청소년들을 볼수록 우리에게도 전환학년, 갭이어(gap year)의 필요성이 절박하게 다가옵니다.

‘인디고 여행학교’는 여행, 자원봉사, 순례를 통해 지구촌의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 종교, 삶의 방식들을 배우고 인정하는 소통과 관용의 대안 실험학교입니다. 그리고 21 세기에 절박하게 떠오르는 ‘생태적인 삶의 방식과 영성’을 훈련하고 익히는 곳입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인디고 청소년들이 여행을 통해 온 ‘땀’으로 부딪혀 배우는 풍성한 여행학교를 열겠습니다. 이 가슴 뛰는 새로운 교육의 현장으로 청소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3. 여행학교 교육 목표



1) Studying

- 영어훈련 : 여행일정 동안 함께하는 현지인 선생님과 영어를 이용한 대화를 통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내고, 여행을 하면서 숙소를 잡고, 물건을 사면서 영어에 익숙해집니다.
- 풍물 : 한국의 전통가락을 배움으로써 우리 문화의 소중함과 한국의 “신명”을 배워갑니다.
- 요가 : 요가를 통해 몸을 움직이는 중에 자신의 몸의 세세한 부분을 느끼는 법을 배웁니다.

2) Sharing

- 홈스테이 : 인도의 농촌마을의 시골집에서의 홈스테이를 통하여 인도의 생활을 몸으로 체험하고, 자신의 삶을 인도사람들과 나누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법을 배웁니다.
- 생태체험 : 소를 키우고, 염소를 키우면서 동물과 교감을 나누게 됩니다.

3) Teaching

- 방과후 교실 : 태권도, 미술, 음악 등 각자의 재능을 살려 인도의 시골 아이들을 가르쳐 봄으로서 가르치는 중에 자신의 소중함을 발견해 갑니다. 그리고 꿈을 가질 기회조차도 없는 아이들과 꿈을 나누면서 꿈의 소중함을 체험해 갑니다.

4) Traveling

- 여행학교는 여행을 하며 배움을 갖는 학교입니다. 숙소를 직접 잡고, 버스표를 직접 구입해보고, 여행계획을 직접 세우면서 스스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5) Trekking

- 산을 오르고 걷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한걸음 걸을 때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기하기 보다는 목적지에서 느끼는 희열을 성취감을 알기에 그곳에 서있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발견한 꿈을 이루기 위한 긴 여행에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4. 여행학교의 특징

5.

생명과 도전정신과 꿈이 넘치는 여행

정호진 생명누리 공동대표

1. 스스로 찾아 나서는 주체적 여행

인디고 여행학교는 다른 여느 여행처럼 가이드가 다 안내하고 참가자들은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수동적으로 끌려 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스스로 할 일과 여행의 목적지와 가는 길과 잠잘 곳과 먹을 것과 볼거리들을 스스로 혹은 조별로 찾아나서는 여행학교입니다. 그런 모습은 지난 기수에서 라주선생님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미 정해진 여행일정을 취소하고라도 문상을 가기로 결정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찾는 여행과 가이드에 의한 여행은 지나고 보면 참가자들의 성장 정도가 정말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여행학교의 목적이었던 자신의 꿈들이 가슴에서 꿈틀거리게 될 것입니다.

2. 함께 하는 공동체 여행

여행학교에 참가했던 친구들 중에 자신은 단체행동이나 공동체 생활이 맞지 않아 혼자가는 여행을 하고 싶다고 제안했던 친구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대화하며 친구들이나 선후배가 함께 하는 여행이 얼마나 새롭고 중요한가를 이야기 했고, 그 친구들은 기쁘게 그룹여행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마친 여행학교 친구들의 소감을 보며 함께 고통과 어려움을 나누며 길을 찾아 나선 여행이 얼마나 서로에게 소중한지 며칠간 떨어져 있으니 그새 서로 보고 싶어지는 사람들로 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아니지만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경험을 공동체 여행을 통해 느끼고 배우고 익힌 친구들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고 품어 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새로운 도전정신을 익히는 모험 여행

여행학교 친구들은 이번 여행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인도의 수많은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상황들을 만날 것입니다. 새로운 것들 앞에서 불안해 하며 움츠러들던 친구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새로운 것들에 맞서 나가는 친구들로 변모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를 잘 몰라도 인도 농촌 마을의 친구들을 사귀고 홈스테이를 통해 새로운 가족을 알아가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친구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이제 이들 앞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나 새로운 것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주눅들지 않고 용감하게 맞서 나가는 용기를 가진 친구들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4. 자신을 찾게 된 자기존재 확인 여행

이번 여행을 통해 인디고 친구들은 부모님과 가족을 떠나 생활하게 될 것이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벗어나 새로운 나라에서 생활도 하고 여행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족공동체 내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며, 내가 속한 조에서 나의 역할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럿 속에서 잊고 지내던 자신을 발견하며 자존감을 찾아낼 수 있는 여행, 그래서 자신이 이 세상을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소중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는 여행학교이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지구촌 인디고 청소년 여러분의 성공적인 여행학교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5. 여행학교 걸어온 길

제1기 여행학교



- 일시 : 2010 년 1 월 8 일~2 월 24 일(50 일)
- 장소 : 인도
- 주제 : 꿈 찾아 길떠난 우리
- 인원 : 청소년 20 명 교사 4 명

제2기 여행학교



- 일시 : 2010 년 7 월 20 일~8 월 27 일(40 일)
- 장소 : 인도
- 주제 : 세상과 만나 꿈을 노래하다
- 인원 : 청소년 25 명 교사 5 명

제3기 여행학교



- 일시 : 2010 년 10 월 4 일 ~ 2011 년 1 월 11 일(100 일)
- 장소 : 인도, 네팔,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 주제 : 우리는 세상의 V.I.P!
- 인원 : 청소년 16 명 교사 6 명

제4기 여행학교



- 일시 : 2011 년 1 월 4 일~2 월 22 일(50 일)
2011 년 1 월 7 일~2 월 25 일(50 일)
- 장소 : 인도, 네팔
- 주제 : 길 위에서 내일을 꿈꾸며 세상을 만나자
- 인원 : A 팀 청소년 22 명 교사 4 명
B 팀 청소년 20 명 교사 4 명

6. 여행학교의 목표와 테마

[5기 여행학교 목표]

- ‘신의 나라’ 인도와 ‘자연의 경이로움’ 을 지닌 네팔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보고 느끼고 체험합니다.
- 생태적 삶의 방식을 고민하고, 자연과 공감하는 영성을 키웁니다.
- 세계어인 영어를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여행기간 동안 현장실습을 통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습니다.
-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평화와 사랑나누기를 실천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몸으로 배웁니다.
- 여러 공동체를 방문하여 노동과 산책, 기도들을 통해 자기를 성찰하고 공감의 영성을 키웁니다.
-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고 외국 청소년들과 교류합니다.
- 낯설고 새로운 생활 공간에서 창조하는 삶, 순응하는 삶을 경험합니다.
- 세계를 가슴속에 품습니다.

[5기 여행학교 테마와 프로그램]

공정여행	세계인과 친구되기	내 안의 여행
지역에 도움이 되는 여행 기획	거리공연 및 자선바자회	명상과 기도
윤리적 소비 실천	인도 시골마을 방과후 교실 참여 (힌두푸르)	영어 일기 쓰기
공정무역에 관한 학습	나를 알리는 명함 나누기	독서와 토론
포카라 공정무역센터 및 Keep 센터 방문	영어에 대한 두려움 떨쳐내기	안나푸르나 트레킹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인도 청소년 아이들과의 스포츠 활동	요가 공동체 체험

7. 5기 여행학교 전체일정

■ 여행기간 : 2011년 4월 22일 ~ 2011년 6월 10일(50일)

■ 여행지역 : 인천→ 네팔→ 인도대륙→ 생명누리 힌두푸르 지부 →인천

기 간	경 로	프 로 그 램
2011년4월22일	한국 출발	
15일간	 네팔	안나푸르나 트레킹 박타푸르/파탄 밥퍼공동체, 품공동체 탐방 문화 탐방/유적지 탐방
27일간	 인도대륙 여행	인도대륙 중단 문화 탐방/유적지 탐방 간디/비노바마베/바바암티 아쉬람 요가체험/타지마할 탐방
8일간	 생명누리 힌두푸르센터	영어훈련/독서 인도적응훈련/방과후 교실 노작/시장탐방/영화관람 문화체험/홈스테이 등
2011년6월10일	한국 도착	


▷ 자기계발 및 어학연수 : 독서프로그램, 꿈찾기, 글쓰기 프로그램, 영어학습 프로그램 진행



▷ 봉사활동 : 방과후 교실, 한센씨병 병원, 나무심기, 장애인공동체, 밥퍼공동체



▷ 문화체험 : 홈스테이, 요가, 인도 시장탐방, 축제참가, 인도 영화관람




▷ 생태체험 : 물아껴쓰기, 마을 환경정화 활동, 생태화장실 체험, 일회 용품 쓰지 않기

8. 5기 여행학교 세부일정

일자	지역	교통편	일정
4월 22일	인천 -카트만두 -포카라	비행기 버스	- 현지 적응 및 트레킹 준비
4월 23일 ~ 5월 4일	포카라 (Pokhara)	도보 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나푸르나 트레킹 - 히말라야 체험 - 티벳 난민촌 둘러보기 - 산속 마을 사람들 만나기 - 공정 여행 관련 활동 
5월 4일 ~ 5월 7일	카트만두 (Kathmandu)	도보 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와 현재의 공존, 카트만두 유적지 탐방 (더르바르 광장, 쿠마리 사원) - 조이 게스트 하우스, 밥퍼 봉사 체험 - 도시 빈민촌 청소 및 위생사업 지원
5월 7일	소나울리	버스 기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와 네팔의 국경지대 - 네팔 입국 비자 신청 <p>5월 7일 고락푸르 PM 10시 30분 5월 8일 바라나시 AM 4시 40분</p>

<p>5월 8일 ~ 5월 10일</p>	<p>바라나시</p>	<p>기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과 죽음의 강, 갠지스 가트 체험 - 갠지스강 보트 유람 - 인도 전통 악기 배워보기 - 미로같은 가트 골목 누비기(시장 체험) - 거리 공연 - 가벼워 지기 한마당  <p>5월 10일 바라나시 정선역 PM 6:15 5월 11일 아그라 포트역 AM 5:55</p>
<p>5월 11일 ~ 5월 12일</p>	<p>아그라</p>	<p>기차 도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지마할 관람 - 나만의 타지마할 찍기, 사진 찍기 경연대회  <p>5월 12일 PM 5시 30분 AGRA CANIT 역 5월 12일 PM 10시 15분 자이푸르</p>

5월 13일 ~ 5월 15일	자이푸르	기차 도보 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맨발대학 : 힘없는 사람들 편에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터를 창출해왔으며 라자스탄의 시골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가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맨발대학에서 배운다. - Pink City 둘러보기 - 라자 만디르에서 영화 관람하기
5월 16일 ~ 5월 21일	세바그람	버스 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디아쉬람: 20세기 인도의 위대한 민족주의 지도자 비폭력주의 제창자 간디의 정신과 만나다. - 바바암티 아쉬람 - 비노바바베 아쉬람
5월 22일 ~ 5월 24일	아우랑가바드 아잔타 엘로라	도보 버스 기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크산업의 도시 아우랑가바드 - 인도 불교 석굴 사원 아잔타 - 엘로라 동굴 사원 탐방
5월 25일 ~ 5월 27일	고아	기차 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으로 지친 몸과 마음, 시원한 바다에서 무더위를 날려버리자! - 올드 고아 탐방 - 패러 세일링, 바나나 보트 - 길거리 음악회 - 여행 보물 지도 만들기  <p>5월 28일 AM 7:45 마드가온 출발 5월 28일 PM 2:53 호스팻 도착</p>

5월 28일 ~ 5월 31일	함피	기차 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루팍샤 사원, 밧팔라 사원, 함피 유적 탐방 - 함피 바자르 둘러보기 - 자전거로 함피 지역 투어하기 - 바구니 보트 타보기 - 길거리 보기 - 함피 강가의 일몰 보면서 백일장 대회  <p>5월 31일 AM 10:30 호스켓 출발 AM 3:30 힌두푸르 도착</p>
6월 1일 ~ 6월 8일	힌두푸르 칼루르 생명누리 센터	전용버스 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 정리 및 칼루르 마을개발 센터 봉사 - 방과 후 교실 교사 및 노작 - 힌두푸르 시장 뽐내기 - 현지인들과 함께 하는 나눔과 축제 - 인도 가정 홈스테이 및 문화체험  

6월 8일 ~ 6월 9일	뱅갈로르	버스 도보	- 떠오르는 인도의 IT 도시 뱅갈로르 - MG Road 둘러보기 - Commercial 쇼핑
6월 10일	뱅갈로르 -인천	비행기	한국도착!

9. 5기 여행학교 여행지도



- 항공편은 네팔 입국, 인도 출국하는 일정입니다.
- 기차일정과 교통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행지의 세부일정은 여행학교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10. 방문 전 준비 항목

- ▶ 교육 프로그램 준비 : 한국 문화교류 준비, 바자회 및 거리공연
- ▶ 현지 봉사활동 준비 : 어린이 교육 - 미술, 마을운동회 (축구, 크리켓 등)
- ▶ 개인별 준비
 - 예방접종 : 파상풍 /신종인플루엔자 등 (신종인플루엔자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가능)
/ 파상풍 접종경험 有, 하이터테트 15,000원정도,
파상풍 접종경험 無, TD 30,000정도, 관련 병원 : 정형외과, 내과, 피부과
 - 자신을 알리는 명함 제작
 - 인도, 네팔에 대한 사전공부
 - 간단한 영어회화

11. 한국 사전 준비 프로그램

1. 1월 29일(토) 14:00 설명회 및 참가자 O.T(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
2. 3월 1일(화) 항공권 발급신청 및 여권발급 완료
3. 참가자 1차 합숙모임
 - A. 합숙일자 : 2월 24일-26일(2박 3일)
 - B. 미리 경험하는 공동체생활
 - C. 친교와 준비점검, 여행 목적 설정 및 꿈찾기 등
 - D. 조 편성 및 조별 역할 분담
4. 참가자 2차 합숙 모임
 - A. 합숙일자 : 4월 7일-9일(2박 3일)
 - B. 바자회 및 공연 기획 / 개인별 명함 제작
 - C. 가이드북 제작
 - D. 준비물 리스트 배포
 - E.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 준비
5. 4월 셋째 주까지 비자발급 완료
6. 출국 :
 - A. 2011년 4월 22일 금요일 공항집결
 - B. 출국수속/ 11:00 출국 (항공편 확정 후 재 공지)

12. 교육비용

- ▷ 교육비용 : 50일간 **총 390만원**
- ▷ 포함내역 : 항공료, 교통비, 여행경비, 생활비, 교육비, 준비비, 진행비, 보험료
- ▷ 불포함내역 : 비자 발급비용, 한국 합숙비용
-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6-201310-757 생명누리 공동체
- ▷ 입학금 납부안내
1. 1차 납부기한 (~3월 1일까지) : 200만원 입금
 2. 2차 납부기한 (~4월 1일까지) : 190만원 입금

13. 참가비 환불규정

번호	환불사항	환불기준
1	출발 30 일전	1 차 입학금 전액 환불
2	출발 29~20 일전	1 차 입학금 10% 공제 후 환불
3	출발 19~10 일전	1,2 차 입학금의 40% 공제 후 환불
4	출발 10~2 일전	입학금의 60% 공제 후 환불
5	출발 전날 및 당일취소	환불불가
6	출발 후 개인사정으로 귀국하는 경우	환불불가

14. 연락처

1) 생명누리 한국본부

-권술용 대표 : 011-452-4982 -정호진 대표 : 016-281-9336

-홍진관 대표교사 : 010-9050-2557 -문지혜 실무간사 : 010-6374-8018

대표전화 070-4010-4949 / 02-766-5595 / Fax 02-766-5596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한국기독교교회관 911호

2) 생명누리 인도지부

-Hidupur 지준구 지부장 : 070-8658-5042 -Vellore 이기은 지부장 : 070-8611-7784

인도 힌두푸르 지부 사무실 070-8658-5042 / 91-8556-220042

주소 : Life World Charitable Trust #9-1-94, Panduranga Nagar,

Hindupur 515201, Anantapur District, Andra Pradesh, In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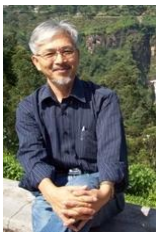
15. 여행학교 조직안내

■ 여행학교 대표



권슬용 교장

- 국제 NGO 생명누리공동체 상임대표
- 지구촌인디고청소년여행학교 교장
- 사회복지활동 / 여행학교활동 20여년
- 세계생태공동체순례단 인솔 10회



정호진 교감

- 국제 NGO 생명누리공동체 공동대표
- 한신대 / 연세대학원 / 한신대학원 박사과정수료 및 강사활동
- 거창 / 함천 생명농업 실천 10년
- 인도 힌두푸르 / 카삼 지역 마을공동체 만들기 운동 9년째

■ 기획팀



손정원 선생

- 인도 생명누리 홍보부장 2년
- 인도 방문팀 인솔 20여 회
- 여행학교 책임 교사



문지혜 선생

- 4기 생명누리 국제 자원 봉사자
- 1,2기 여행학교 교사

■ 교육팀

- 윤재훈 박사 - 시인, 생태순례를 온몸으로 겪어낸 전문가
- 태영철 소장 - 다중지능 상담센터 소장
- 윤종수 목사 - 히말라야 미션 대표
- 홍진관 선생 - 현 산티학교 교사

■ 인솔교사

	<p>홍진관 선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졸 - 전교조 본부 교육운동 - 학교너머 길잡이 교사 - 대안학교산티학교 교사(현) - 일본 피스보트 세계일주 		<p>민유니 선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대학교국어국문학과 재학중 -3기 생명누리 국제 자원 봉사자 -직업재활교육 봉사
	<p>이상윤 선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창 고등학교 졸 -영남대학교 영어교육과 3학년 휴학중 		<p>최늘샘 선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디학교 졸 -성공회대 사회학과 졸 -한국독립영화협회 활동 -삶 창작행동 해방단(현)
	<p>Raju 선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누리 인도지부 직원으로 활동 3년 - 인디고청소년여행학교 1, 3기 인솔교사 및 영어지도 		

16. 여행학교 학생/학부모 소감문

[여행학교 학생 소감문]

수지의 에세이

인디고 청소년 여행학교 2기 이해인



무엇이든 ‘시작’ 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그럼 나는? 나는 아니다. 난 시작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완벽히 끝맺는 것이 더 어렵다. 내게 ‘시작’은 쉽다. 여행학교도 역시 쉽게 하겠다고 얘기했다. ‘먼 인도까지 가서 무엇을 배우려고?’ , ‘무슨 목적을

가지고?’ 설문지에서 물어오는 해답도 생각해 보지 않은 채로 나는 인도여행 준비를 시작했다. 살 것 투성이었다. 새 배낭, 새 옷, 새 침낭, 새 준비물... 인도 여행이 두렵기 보다는 설렘이 먼저였다. 엄마 혼자 너무 야단법석을 피우는 건 아니냐고 아빠가 물었을 때도 그냥 웃고 말았다. 그냥 처음 해외여행 가는 것이, 비행기를 탄다는 것이 내게는 우선순위 였나 보다. 몇 번 얼굴을 마주한 사람들과 웃으며 비행기를 오를 때 느낀 거지만, 그들은 나와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했었다. 나처럼 그냥 몸만 팔랑거리고 온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별 차이를 느끼지도, 더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관광 가듯 편한 마음으로 인도에 도착했다.

특유의 냄새며 날아다니는 파리들, 땅에는 흙과 똥 범벅이...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있는지, 인상을 찌뿌리며 인도에 한 발자국씩 내디뎠다. 가장 첫 숙소인 게스트 하우스에서도 소리없는 내 불평은 계속 되었다.

‘화장실이 뭐 이래?.. ‘물이 왜 이렇게 차가워?’ , ‘등이 배겨서 잠을 못 자겠잖아!’ 남들이 옆에 있으면 아마 짜증나서 못 견딜 정도로 했었을거다.

그렇게 불만있던 3일이 지나고 드디어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과후 학교가 시작되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미술도 못해서 미술 가르치는 게 부끄러울 정돈데 ‘수지 티쳐!



수지!’ 하는게 너무 고마웠다. 너무 순수해서 거짓말도 못 하겠고, 카메라만 들면 ‘포토! 포토!’ 하고 따라와 주는 게 마냥 귀여웠다.

귀여운 애들과 보낸 짧은 시간들과 선생님이 된 시간들이 후딱 지나가고 홈스테이가 다가왔다.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우리 엄마의 집은 교회에서 제일 가깝고 아담한 집이었다. 나와 룸메이트가

오니가 너무 좋아하셨고 눈빛도 진짜 딸내미 보듯 친근한 눈빛으로 말도 안 통하는 우리를 챙겨주는게 마냥 너무 고마웠다. 밥도 듬뿍듬뿍 퍼주시고, ‘수지~’ 하는 목소리가 진짜 엄마 같아서 마지막날 헤어지기도 아쉬웠다. 손에 뽀뽀해주던 엄마를 잊을 수가 없다. 우린 국적도 다르고 어찌보면 초면인데 이렇게 한가족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구나 싶어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 인도라는 나랑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서 보람차다.

어찌보면 함께 마주보며 웃으며 지내는 우리 여행학교 친구들은 모두 초면인데 이렇게나 가족같이 지낼 수 있구나, 분명히 우리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인데 밤에 동그랗게 앉아 자기 얘기를 나눌 수 있는게 마냥 신기했다. 분명히 첫인상은 별로 였는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런것이 너무 좋았다. 생명누리 인디고 청소년 여행학교를 모두 아는데 아니라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는데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부모님들을 가진 아이들끼리 모여있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인도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기분 좋았던 일도 있었고 얼굴을 붉히며 빈정대했던 일도 많았다. 눈을 마주쳤으면 살짝 눈 마주치고 웃는 게 정상이던 것 같은데, 끝까지 쳐다보기만 하는 건 내 기분을 너무 상하게 했다. 그런 부분에서 인도가 너무 싫었고 친한척 하는 게 참 재수 없다고 느꼈다. 그래도 좋은 첫인상과 예뻐던 웃음은 내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 교복을 입고 다니는 학생들, 자유로이 공부하며 편한 차림의 대학생들, 열심히 맡은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풍경과 비슷한 점도 많았다고 느낀다. 인도에서 만난 한국인들이, 한글이, 한국 음식이 요렇게 반가울 줄 상상도 못했다. 지나갈 때마다 한국이 보이는 것 같으면 ‘우와!’ 싶었다. 이렇게 반가운데 왜 정작 한국에서는 소홀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여기서 만난 어떤 오빠랑 처음 적응기간 때 친해졌었다. 그래서 헤어질 때 선물로 일기를 쓰라고 노트하나를 받았다. 처음엔 장난 삼아 한 글자씩 적은 거였는데, 나중에 갈수록 오늘 있었던 일들과 내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곳이 이 노트밖에 없을 정도로 소중해졌다. 역시 한국에서도 귀찮게만 느끼던 일이었는데 여기서 내 진짜 마음들을 적으며 돌이켜보니 정말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말 했던 것처럼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여기서 생긴 좋은 습관이다. 하루하루가 지나고 새로운 곳으로 갈수록 같이 움직이는 그 사람들이 마냥 똑같은 줄만 알았는데 변화하고 있음을 느낀다. 물론 아무런 고통과 문제없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그들은 점차 변화하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데 어느새 점처럼 조그맣게 보일 때까지 걸어진 그들이 참 부러웠다. 엄마는 내게 많은 기회를 준다. 나는 그 기대를, 그리고 기회를 마다않고 다 해보는데도 아직 그대로인 것만 같아 부끄럽다.

인도에 온지 한 달 하고도 10 일이 흘렀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그대로다. 더 이상한 건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느끼기에 인도에 온지 한 6개월은 된 것만 같다. 인도에는 아주 적응한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인도 사람들과 우리 여행학교 사람들에 대해 모르겠다. 그래서 항상 알 것이 넘쳐나고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걸까? 변하고 싶어서 왔다는 사람들,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 자신이 선택해서 온 사람들. 저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함께 어울리며 서로의 짐을 들어줄 수 있게 될 걸까? 밤에 했던 지겨운 소감 나누기, 칭찬합시다가 마냥 싫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좋았던 시간들 같다. 내가 몰랐던 걸 알 수 있던게 가장 큰 이유고 그 다음은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참 좋다.

한국에 있는 가족,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보내면 잠깐 잊고 있을 틈에 연락이 온다. 설새없이 가족들과 싸우고, 친구와의 트러블도 지금은 다 애뜻하게 느껴진다. 하나도 안 보고 싶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엄마 말대로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하는 소중한 경험 중 하나였다.

8 월을 마치며 이번 여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는 얼굴에 웃음이 나온다. 느끼는 것도,



배우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할 것들도 하나 둘 늘어나는 것 같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이것저것 해야겠다고 느꼈다. 맹인학교에 봉사하러가서 느낀 거지만 그 아이들처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무언가 불편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지 말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밝아나가며 해야겠다. 한국가면 꼬옥! 엄마 아빠말도 잘 듣는 해인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내일이면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할 것이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덜 배웠지만 조금은 변화되어 온 해인이었으면 좋겠다. 나, 내일 한국간다.

[학부모 소감문]

아이들의 첫 여행

1기 여행학교 강동원/강동하의 아버지 어머니 강신호/이애경

산다는 게 무언지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좀처럼 여유롭지가 않다. 아등바등 살고자 한 적은 결코 없었으나 지나고 보면 바늘 끝 하나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빡빡한 삶이었다. 이런 삶을 내 자식들도 거쳐야 하는가, 상상이라도 할라치면 소름마져 돋는다. 아마도 이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건 어느 부모든 마찬가지리라.



이렇듯 쫓기면서 살다 보니 젊었을 적부터 하고 싶은 것들을 놓친 게 제법 된다. 그 중에 여행 다니기는 아마도 우선순위가 높았던 것 중의 하나였던 것 같다. 그렇다고 전혀 안 다녀본 건 아니지만, 이를테면 세계일주나 유럽일주 같은 장거리 가족여행

프로젝트를 꼭 해보고 싶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걸 보고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생각처럼 온 가족이 함께 여행길을 나서는 기회란 쉽지 않았다. 장거리 일주여행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때로는 큰 결단마저도 요구된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은 커 가는데 정작 부모가 준비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굳어져 가고 있었던 차였다.

인터넷을 통해 생명누리 청소년여행 학교 소식을 알게 된 아내가 아이들을 인도에 보내자는 제안을 해왔다. 인도라면 요즘 아이들이 너도나도 배낭여행을 떠나는 곳이다. 큰 나라이고 가난하지만 깊은 역사와 무한한 잠재력의 땅 인도. 난 별 망설임 없이 ‘그러지 머’ 해버렸다. ‘그렇지만 유럽여행의 숙제는 아직 남아 있는 거지’ 라고 되뇌면서 말이다.

여행이란 마치 벤치에 앉아서 사색 중에 마시는 한 잔의 상큼한 차와도 같다. 아니 아스팔트와 질주하는 차들 틈바구니에서 문득 올려다 본 파란 하늘에 울컥 놀라는 마음과도 같다. 아니 어쨌든 그보다 겨우내 말라있던 웅달샘 주변 얼음 틈새로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듣고는 기어이 손을 적서 확인해 보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이처럼 여행이란 새 숨을 불어넣는 일이다. 단혀있던 사람의 가슴이 트이는 일이다.

그런 여행에 아이들만을 보내기로 결정하면서도 우리 부부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순발력과 순수한 감성을 믿었기 때문이다. 2 박 3 일의 지리산 종주를 하면서 녀석들이 보여준 인내력과 체력에 대한 믿음도 있었다. 준비하는 동안 아이들은 처음에는 썩 내켜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진지해져 감을 잊볼 수 있었다. 아마도 여행의 중요함에 대해 수도 없이 반복하던 엄마아빠의 고집스러움에 맞서기를 포기한 때문이라. 50 일간의 결코 짧지 않은 모험을 아이들은 기꺼이 받아들여 주었고, 그리고 그들은 긴 뒷모습만을 남기고 출국장을 빠져 나갔다.

아이들이 인도에 가있는 동안 우리 부부는 속속 올라오는 생명누리 홈페이지에 반가와 하면서도 전화를 기다리거나 굳이 하려 들지 않았다. 아이들이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존중해주고 공감하고자 하는 차원에서였다. 아이들도 그런 마음을 아는지 당당히 해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지 선생님들이 올려주는 사진 속에서 날이 지날수록 웃음을 찾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집을 떠나 있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떠나 있는 동안에 집에 대한 그리움에 울컥하는 밤을 몇 번씩은 보냈을 수도 있었겠다. 그럴수록 그 여행은 좀 더 진지하고 절실한 시간으로 기억되었으리라. 아마도 인솔교사로 동행하신 선생님들은 그러한 아이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그들이 스스로 이겨 내는 과정을 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다.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많이 의지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까맣게 그을리고 훌쩍하게 살이 빠진 채로 공항 입국장을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녀석들 힘이 많이 들었구나 싶었다. 씨익 웃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성큼 컸구나 하는 생각에 몽클해지기도 했다. 저 투명한 눈으로 바라보고 가슴속에 담아온 인도라는 세계가 앞으로 그들 삶에 훌륭한 밑거름이 되고 거름이 되어 녀석들을 자라게 할 것이다. 또 이제는 부모가 권해서 나가는 여행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여 나가는 여행도 머지않았겠다 싶다. 아이들이 더 큰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일이지만 하면 뭐든 괜찮지 않겠는가. 그 동안

여행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무사히 인솔해주신 인디고 여행학교 권대표님과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행기간 동안 책임감과 걱정 때문에 오히려 부모들보다 편히 못 주무셨을 것 같다. 이번 결코 짧지 않았던 아이들의 첫 여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건강한 꿈을 공유하는 생명누리에 한발 다가섰기를 감히 소망한다.

17. 사진으로 보는 인도와 네팔의 모습



1. 인도, 간단히 훑어보자!

11억 5000명 인구 |
 힌두교(80%),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종교 |
 한반도의 17배 - 세계에서 7번째로 큰 나라 면적 |
 힌디어(45%), 벵골어 존재하는 언어 총 700여개 언어 |



2. 변화무쌍, 인도의 기후

| **혹서기** 3~5월경, 40도를 넘는 지역이 많음
 | **우기(몬순)** 비가오며 이때는 매우 덥고 습하다
 6월초~7월초
 | **건기** 10~2월. 남부는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
 북부는 밤에 상당히 추움



3. 인도에서 유의해야 할 점!

의복

1. 여자의 경우 가슴이 드러나는 옷, 짧은 반바지를 피해주세요
2. 여름옷 2벌과 긴팔 옷 한장 이면 충분해요.
네팔트레킹의 경우에는 도톰한 방한복 한 벌이 필요합니다.

1. 더운날씨에 차가운 음료는 만병의 근원! 탄산음료 NONO!
2. 현지 식당에서 나오는 물보다 개인 생수병의 물을 애용합니다.
3. 마약이 담긴 음료! '스페셜라씨'는 특히 주의하기.

먹는 것

그 외

1. 인산인해를 이루는 기차, 버스에서 소지품을 주의하세요.
2. 종교시설 방문시에는 예를 갖추고 현지관습을 존중하세요.
3. 밤 늦게 돌아다니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위험한 법!



네팔,
어떤 나라인가요?



1. 네팔, 간단히 훑어보자!

약 3000만명 인구 |
힌두교(80%), 불교, 이슬람교 종교 |
한반도의 3분의 2 크기 면적 |
네팔어 언어 |



2. 히말라야가 있는 그 곳, 네팔의 기후

| 혹서기 4~6월경, 30도까지 올라감
| 우기(몬순) 6~9월경, 몬순으로 인한 폭우 발생
| 건기 10~5월경. 밤과 낮의 기온차가 상당히 심함
*카드만두는 고지대의 분지로 4~9월 평균최고기온 27~28도
포카리는 1월을 제외하고 연중 기온이 20도이하로 내려가지 않음



3. 네팔에서 유의해야 할 점!

트래킹

1. 트래킹 중 산소부족으로 인한 고산병으로 긴급히 하산의 경우가 있으니 휴식을 자주 취하고, 물을 자주마시며 마늘스프를 섭취!
2. 눈이 녹은 차가운 물은 배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길을 잃을 우려가 있으니 단독행동은 삼가!
4. 반드시 등산장비(등산화, 스틱)를 제대로 갖추어 올라가야 몸에 충격이 덜 가게됩니다.
5. 쓰레기 투기나 흡연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18. 짐싸기 및 자주하는 질문(Q&A)

1) 짐, 어떻게 싸야하나요?

가장 먼저 **체크리스트(점검표)**를 **차분하게 작성**하시고, 하나하나 지워가며 준비하고 점검하면 누락되는 물품이 없이 짐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최소 일주일 전, 넉넉하게 15일 전부터 점검표를 작성하고, 준비 해야 하는 물품들의 기한을 정해 준비합니다. 필요한 물품들을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 배송에 서두르지 않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부실한 준비는 현지에서 고생스러운 일이 됩니다.

짐은 가볍게! 필요한 것만!

아이들이 여행을 하면서 즐겁게 만드는 비결은 짐을 가볍게 만드는 일입니다. 챙기고 싶은 것을 다 챙기게 되면 아무리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한 여행일지라도 곧 고행으로 변하기 마련. 짐을 하나하나 버려나갈지도 몰라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꼭~ 필요한 것들로만 챙깁시다. 기본 장비를 구할 때 조금 비싸더라도 가볍고 부피가 적은 것으로 장만하면 아이들이 가볍게 여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必 꼭챙겨요^^



여권, 항공티켓



여권복사본



필기도구 (수첩+펜)



카메라



지갑

여네들을 데려가는 게 좋아요! “여행 준비물!!”



배낭
40-50L 백팩, 커버(도난위험!)



침낭
가벼우면서 따뜻한 것
겨울용X, 오리털충류(7만원~그 이상)



자물쇠
이동시 짐 도난방지용 쇠줄
(현지구매가능)



신 발
샌들, 일반 운동화도ok



의류
2-3벌 (현지구매가능)
긴팔1벌 필수(추위, 벌레 싫어ㅠ)



챙 넓은 모자
선크림만으로는 부족해요



손수건
땀....나잡아요...^^



물통, 수저, 간단한 식기
위생사정이 나쁜 곳에서 사용 가능



내복 or 보온성 옷
일교차가 커서 추위를 느낄 때
좋아요



헤드랜턴
정전, 트레킹 때 유용



선물
한국기념품, 사진, 명함, 학용품 등
(나를 기억하고픈 친구들에게 줄 선물)



선크림



비상식량
음식이 입에 너무 안맞거나
한국음식이 그리울 때!
(컵라면, 고추장, 김, 멸치 등)

- 세면도구 : 조별로 논의 후 공동물품으로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수건-스포츠타월도 좋음, 비누, 샴푸, 칫솔, 치약, 샤워타월, 로션 등)
- 위생용품 : 생리대, 화장지 약간
- 의약품 : 개인 의약품. 기본적인 소화제, 진통제 등은 공동 준비.
- 팔레집게 : 팔레를 배낭에 넣고 말릴 수 있음
- 지퍼락, 비닐 등은 언제나 유용합니다!

- 네팔 트레킹용

- 따뜻한 긴팔과 등산바지(보온+속건 기능성 권장), 등산양말 2켤레정도
- 트레킹화(현지 대여 가능, 특별한 족형일 경우 자신의 것 준비. 운동화도ok)
- 정수제
- 효력이 센 진통제, 근육통에 바르는 파스(멘소레담류), 근이완제, 지사제, 무릎보호대, 스틱, 밴드 (발 물집대비) 등 (개인 몸상태에 따라 준비. 남은 여행기간에도 항상 들고다녀야 하니, 꼭 필요한 것인지 꼭 다시 한 번 숙고)

2) 자물쇠는 어떤 것을 구입해야 하나요?

케이블락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무거운 것을 구입하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첨부된 그림처럼 싸고 가벼운 것으로 구입 부탁 드립니다. 4,000원 정도에 대형 마트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방의 자크를 열지 못하게 할 작은 자물쇠도 유용합니다.

3) 신발은?

운동화를 기본으로 준비하세요. 트래킹을 해야하니 빌리는 신발보다는 가벼운 경등산화 정도를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새신발보다 신고다니던 익숙한 신발이 좋다는거 아시죠? 그외 슬리퍼 혹은 샌들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여학생의 경우 구두는 절대 금지입니다. ^^

4) 선물을 꼭 준비해야 하나요?

무겁지 않은 것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전통열쇠고리, 부채, 펜 등.

5) 수건은 몇 개나 준비해야 할까요?

스포츠 타월 한 개와 일반수건 한 개만 준비하면 가방이 가벼워 지겠죠!

6) 보온성 옷은 무엇을 말하나요?

여행 일정 중에 네팔 히말라야 트래킹이 잡혀있습니다. 보온 잠바, 트래킹 장비 등은 트래킹 전에 빌려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등산양말이나 보온성이 있는 옷 한벌정도만 준비하면 트래킹이 더욱 즐거워 질겁니다. 대형 마트나 등산용품 파는 곳에 가면 비싸지 않은 따뜻한 옷이 많습니다.

7) 전자제품은?

가능하다면 핸드폰, PMP, 전자사전, MP3등 전자기기를 가지고 오는 것을 막을 예정입니다. 전자기기는 여행학교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소통을 막습니다. 그리고 분실사고가 많으며 개인 부주의로 잃어버린 경우 누구에게도 보상을 요청할 수 없기에 금지합니다. 영어사전은 휴대용 페이퍼 사전을 준비바랍니다.

8) 의약품

긴급 의약품은 공동으로 준비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복용해야하는 특수한 약들은

개별로 준비해주시고, 생리 진통제도 본인에게 맞는 것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9)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요?

신종인플루엔자 접종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접종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가까운 보건소에 조회하시면 접종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보다 중요한것은 현지에서의 건강관리이며 질병발생시 교사들도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의료지식과 경험들이 있으며 또한 현지에도 이같은 병에 대처하는 현지 의료시설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굳이 많은 예방접종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 수질이 안좋다던데 먹는 물은 어떻게?

생수 또는 끓인 물을 사먹습니다. 개별 물통을 준비해주세요.

11) 용돈을 얼마나 줘야 하나요?

비상금 100달러와 10만원정도면 무난합니다.

19. 유의사항

- 참가가 확정되면 지정된 날짜까지 입학금+여행경비를 입금하셔야 합니다.
- 참가 신청서와 정확한 영문이름(여권에 적힌)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 여권 만료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여권사본을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indigoyouth@hanmail.net)
- 청소년 여행학교는 여행하며 배움을 갖는 학교입니다.
 - 숙소 : 게스트하우스 급이며, 한국 여관급 시설입니다.
 - 홈스테이 : 더욱 열악한 인도 농촌의 가정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 세면도구 : 개인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 여행 전체 일정은 기차나 버스 등의 시간 변경, 취소가 있을 수 있으며, 전체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이용하는 열차의 객실은 2등칸으로 현지의 중산층들이 주로 탑승합니다. 하지만 귀중품의 분실 우려가 있으므로 여행에 불필요한 물건들은 한국에서 미리 부모님께서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차 이용 중 배낭 물품을 분실하지 않기 위해 여행용 캐이블 자물쇠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환전] USD를 환전하여 준비해 주시거나, Citi은행 국제현금카드도 이용 가능합니다.
 - 여행학교에서는 개인의 비상금을 \$100 정도 주실 것을 추천하며, 긴급한 때를 위해 Citi은행 국제현금카드 사용을 추천합니다. (비상금은 용돈이 아닙니다!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 [식사] 대부분 현지 대중식당을 이용하게 되므로 밑반찬(캔류)를 준비하는 것은 짐 무게 때문에 여행이 불편해집니다. 입맛이 까다로운 경우에 팩고추장/김/멸치 정도를 추천합니다.
- 생명누리 마을개발센터에서 언어훈련 및 현지 적응훈련을 하는 동안에는 학생들이 직접 식사를 만들어 먹게 됩니다.
- [유류할증료] 최소한으로 인상될 때는 팀재정에서 충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류할증료 상승폭이 클 경우 추가입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액체류 반입금지] 07년 3월 이후부터 100ml이상의 액체류는 항공기 내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공항압수) => 탁송화물은 OK.

20. 이후 여행학교 진행계획 안내

■ 제 6기 여행학교

- 일시 : 2011년 3월말 경 ~ 2012년 2월 말 경(약 1년 간)
국내 훈련 2개월/ 여행 9개월
- 장소 : 인도, 네팔,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 인원 : 학교너머 청소년 13명~15명/ 교사 2명
평생교사, 대표교사, 자원교사 모집 중, 추천 바람.

■ 제 7기 여행학교

- 일시 : 2011년 7월 중순 출발 예정

■ 제 8기 여행학교

- 일시 : 2011년 9월 중순 출발 예정
- 대상 : 학교너머 청소년

< 1년 여행학교(6기) 세부계획 >

IQ EQ FQ GQ NQ JQ 두루 천재성이 엮보이는 인디고 전형의 ‘김평화’, ‘이 건’ 두 남녀 청소년을 중심으로 15명 미만의 청소년과 생태순례를 온몸으로 겪어낸 전문가 윤재훈 박사(시인)와 자원교사가 참가 예정입니다.

1) 일정

- 3~ 4월 : 참가자 (학교너머 교사, 청소년포함 15명미만) 확정하여 국내 1-2개월의 강도 높은교육과 훈련을 진행예정 (영어회화/현지어/스카우트/응급구호/독서력/자기주도학습/스포츠/합창/연극/바자/팀웍/정체성/가치관/생태/영성훈련)
- 5~ 1월 : 9개월 간 해외 8~ 9개권역 순례
(1) 국내훈련 (2개월) - 영어회화, 역사연구, 독서토론, 생활명상, 산악훈련

(2) 인도(3개월)

▮ **힌두푸르를 향하여** - 델리, 자이푸르, 푸쉬카르, 조드푸르, 자이살메르, 우다이푸르, 마운트아부, 아메다바드, 뭄바이, 아우랑가바드, 엘로라, 아잔타, 뿌네, 고아, 함피, 벵갈로, 마이소르, 힌두푸르.

▮ **오로빌 공동체 중심으로** - 마말라뿌람, 폰디체리, 칸야꾸마리, 코발람, 코치, 첸 나이, 켈커타, 아난다 나가르, 보드가야, 바라나시, 카주라호, 오르차, 아그라, 델리

▮ **인도 히말라야를 찾아** - 하리드와르, 리쉬게쉬, 야무노트리, 강고트리, 거우목, 깨다르나트, 바드리나트, 마나 빌리지, 꽃들의 계곡, 험쿤드 사히브, 고락푸르, 소나올리, 룬비니, 포카라.

▮ 주요 내용 :

- 인류의 미래 공동체의 실험지 <오로빌공동체>의 인종전시장, 명인 명품 공방체험
- 국제 NGO<생명누리>의 사역현장인 힌두푸르지역 여러마을 달릿(불가촉천민 마을)현장에서 보조교사/ 홈스테이/노작 체험/학습
- 인도중심부 낙푸르지역의 간디, 비노바바베, 씨알아쉬람들 체험과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아잔타 석굴들
- 인도의 핵심 델리/바라나시등 체험

(3) 네팔

▮ **안나푸르나/바글룽** -베시사하르, 차메, 마낭, 포롱라, 묵티나트, 카그베니, 줌숨, 마르파, 라르중, 가사, 파또빠니, 고레빠니, 간드룩, 마차푸스리 BC, 안나푸르나 BC, 나야폴, 바글룽, 버쿤데.

▮ **카트만두/랑탕** -카트만두, 시야브로베시, 히말라야 호텔, 랑탕 빌리지, 칸첸 곶 파, 랑샤시 카르카, 체리코 리, 라우리비나, 코사인 쿤다, 헬람부, 치플링, 순다리잘, 카트만두.

▮ **솔로콥부/에베레스트** -지리바자르, 긴자, 루크라, 남체, 탕보체, 텅보체, 로부체, 고락샙, 에베레스트 BC, 깔라빠탈, 종라, 졸로페스, 고쿄피크, 남체, 팍딩, 루크라, 카트만두.

▮ 주요 내용 :

- 북인도 에베레스트 산행체험

- 네팔/히말라야 3 개소 트레킹
- 자원봉사 및 문화체험 활동

(4)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캄보디아

▮ **아속/샹글라부리** -방콕, 아속 공동체, 샹글라부리, 반우락 공동체, 송하이 펜탄, 아난다 디디 센터, 다다 센터.

▮ **말레이시아/싱가폴/치앙마이** -페낭, 조호바르(한국 다다 농장), 싱가포르, 치앙마 이 아난다 디디센터, 다다센터.

▮ **라오스/캄보디아** -비엔티엔, 반비엔, 루앙뿌라방, 라오스 국제학교, 프놈펜, 앙 콜와트, 메콩강 영광의 집.

■ 주요 내용 :

- 방글라데시
- 방콕을 거점으로 한 동남아 4 국-아속공동체 노작 등 수련과 버마국경 난민 센타 등을 중심으로 머무르고 학습하고 연수를 받으며 스포츠, 합창단, 악단 공연여행등과 21 세기 의 과제인 “생태와 영성” 의 다양한 공부와 활동으로 1 년을 10 년같은 대단한 과정을 겪으며 미래의 지도자로 양성하고자 함.

2) 기타사항

- 기간 : 국내훈련 2 개월 + 해외여행, 봉사, 연수 9 개월 (3 월~4 월-국내훈련, 5 월 텔리 도착, 1 월 인천 귀국)

- 항공료 : 인천-텔리/카트만두-방콕-인천 항공료 및 교육훈련비용 300 만원, 해외경비 - 월 70 만원×10 개월=700 만원. 총 1,000 만원

* 고려사항 ; 교사사례+왕복 항공료+기타비용=300 만원

**여행학교 입학 지원서는

-6 기;전환학년 1년여행학교 / 5 기; 50 일간 지원서로 확실히 구분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상세안내; www.smnuri.com cafe.daum.net/kwonsay

21. 산티학교 모집 안내



생명누리 대안학교

산티학교 학생모집요강

(추가전형)

1. 모집지역 : 전국
2. 모집정원 : 중등부 5명내외, 고등부 8명내외(남녀공학)
3. 지원자격 : 학교가 수용하기엔 너무 큰 생각을 지닌 청소년
모험과 도전정신을 가진 청소년, 호기심있는 청소년
4. 학교성격 : 중고등연계 6년과정 비인가 대안학교 (2011년 3월 개교 예정)
5. 전형일정 (추가전형)

전형업무	전형일정	비 고
원서교부	2011. 1.27(목) ~2011. 2. 10(목)	원서는 산티학교 홈페이지와 (http://cafe.daum.net/shanthi) 생명누리 홈페이지에서 (http://www.smnuri.com/) 내려받기
원서 접수 (1차 전형)	2011. 1.27(목) ~2011. 2. 10(목)	*접수는 2.10일(목) 17:00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와 이메일 접수 *우편접수 : 경북 상주시 외서면 봉강리 139번지 산티학교 담당자 앞 *메일접수 : shanthischool@hanmail.net
1차 합격자 발표	2011. 2. 11(금) 3시	1차 전형 합격자수는 중등부 5명 내외, 고등부 8명 내외
면접 심사 (2차 전형)	2011. 2. 12(토) 1시	*학부모 필히 동행 *주소: 경북 상주시 외서면 봉강리 139번지
최종 합격자 발표	2011. 2. 14(월) 17시	산티학교 홈페이지, 개별통지
합격자 등록	2011. 2. 15(화) ~2. 26(토)	국민은행 069137-04-004687 (생명누리공동체)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입학요강'란에 추가모집을 참고하시거나 문의바랍니다.

- 산티학교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shanthi>
- 산티학교 이메일 : shanthischool@hanmail.net
- 생명누리 홈페이지 : <http://www.smnuri.com/>
- 산티학교 교장 경호진 : 016-281-9336 (현재 인도출장 중 아래 대표교사에 문의)
- 산티학교 대표교사 채수영 : 010-4552-3864
- 산티학교 교무실 : 070-4257-3210 / 054-532-3210